

# 다함께 원직복직



##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호 II

■ 2018년 6월 18일(월) ■ 발행인: 박태환

# 해고자 전원 복직, 사측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 발전사 사장들은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를 보고 각성해야

문재인정권은 대선기간 당시 노동존중사회 실현 기본계획으로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창출”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첫걸음은 노동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전원 복직부터이다.

“이 천막을 치워야 코레일이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취임 첫날 해고자들의 복직 요구 천막농성장에 방문하여 한 말이다. 그리고 이틀 뒤 노사합의로 해고자 98명 전원 복직이 결정됐다. 얼마 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로 노사합의를 통해 6명 전원 복직되었다. 한국철도공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고자들도 발전사의 경우처럼 해당 기관의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두 공공기관에서의 해고자 전원 복직은 사측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발전사 사장들은 과거 정권의 적폐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해고된 9명의 발전노동자 전원 복직은 당신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부디 현 정권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동참하여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

## 발전현장에서, 청와대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다함께 투쟁!

발전노조는 해고자원직복직을 위해서 청와대와 본사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산하지부에 원직복직 요구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원직복직 쟁취 선전전을 돌아가며 시행하고 있다.



# 해고자 복직으로 민주노조의 새 역사를 쓰시다.

이호동 (2002년 발전소 매각 저지 파업 시 위원장으로 해고)

경복궁 건청궁에 전깃불이 켜지며 시작된 이 땅 전력산업의 역사. 전력산업 공공성 붕괴가 코앞이던 2001년, 발전노조는 민주노조의 출발과 함께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발전노조 38일의 파업을 통해 민영화 강행을 저지하는 역사적 대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7년 발전노조의 역사는 정부의 '분할 민영화' 정책에 맞선 '통합 공영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반노조주의 공격에 맞서서 민주노조 사수와 확대를 위한 투쟁의 행군이었습니다. 우리노조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과 조직의 희생을 치르며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전력과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발전노조 6명의 해고자는 그 과정에서 선봉적 임무를 수행하다 길거리로 내몰린 우리들의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해고자를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날까지 지켜내는 것은 발전노조의 약속이행이며, 민주노조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방기하는 것은 조직이 스스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며, 민주노조의 깃발을 짓밟는 배신행위입니다. 발전노조는 복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세를 맞아 비록 개인적 사정으로 발전노조를 떠났지만 과거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노동자는 그래서 현재 9명입니다.

발전노조의 존재의의와 강점은 조합원 동지들과의 약속을 지켜내고 투쟁의 상징 해고자를 지켜내며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멋진 역사의 계승입니다. 어용노조와 민주노조를 가르는 중요한 변별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해고자들은 기나긴 해고의 터널을 빠져나와 조합원동지들의 힘으로 현장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새 역사를 발전노조사에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해고기간을 버틸 수 있었고, 조합원 동지들의 힘으로 감격스럽게 현장에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촛불항쟁의 성과로 각종 적폐청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발전현장의 적폐도 일소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전력 산업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적폐시대의 희생자들인 해고자 전원복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노조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암흑의 시기에 자행되었던 노조파괴의 진상 조사와 책임규명을 통해 다시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전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1700만 촛불항쟁을 이끌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저는 그것이 발전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자 의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촛불항쟁의 선봉에서 적폐청산을 외쳤던 발전 해고자들이 발전 현장으로 돌아가 공공발전의 새 역사시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도 마음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발전노조 조합원 동지들을 변함없이 굳게 믿습니다.

역사와 발전노동자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발전노조는 할 수 있습니다. 투쟁!



##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서명전 시행

10여년에서 20여 년 동안 해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발전현장의 해고자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직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사업장 밖의 가능한 분들에게 서명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기관에 발전해고자 원직복직의 탄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세상을 움직였듯이,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큰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기한: 6월 18일 ~ 6월 30일)**